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이 변질시켰던 게야. 그래서 결국 그녀는 죽었으나, 설상가상으로 사리 판단을 할 만큼은 정신이 있었기에, 자기가 한평생 그 의견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재산을 다 빼앗기고 멀리까지 당했다는 것을 알아버렸다네.

비르지니가 묻힌 곳 바로 옆, 같은 갈대밭 아래, 그녀의 연인 폴이 묻혔고, 두 사람을 둘러싸고 다정했던 두 어머니와 충직했던 하인들이 묻혔네. 이들의 검허한 무덤 위로 사람들은 대리석 하나 세우지 않았고, 그들의 덕을 기리는 글귀 하나 새겨두지 않았지. 허나 그들에 대한 기억은,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어. 그들의 혼백은 살아 있는 동안에도 멀리했던 화려함일랑 필요로 하지 않네. 다만 그들이 여전히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둔다면, 분명 그들은 덕성이 부지런히 나아가는 초가지붕 아래를 서성이며, 제 운명이 성에 차지 않는 가난을 위로하고, 젊은 연인들에게 꺼지지 않는 불꽃과, 자연이 주는 것들에 대한 애정과, 일에 대한 사랑과, 부에 대한 두려움을 길러주고자 할 걸세.

왕들의 영광을 기리고자 세워진 기념비에도 침묵을 지키던 민중의 목소리는, 비르지니의 죽음은 영원히 기리고자 섬 도처에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주었네. 호박섬 근처로 보이는, 암초 한복판에 있는 해협은 ‘생제당호의 여울’이라 불렀는데, 유럽에서 비르지니를 데려오다가 좌초한 배의